



이원론과 비즈니스

현대 경제계와 비즈니스 세계 이면에 숨어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손준원

지금 현대 경·재계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난 1월말 스위스에 있는 한 작은 도시, 다보스를 향해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한주 간 동안 일어난, 세계경제포럼¹⁾의 연례모임에는 전 세계의 정부와 경·재계의 지도자들이 작은 도시인 다보스와 클로스터스에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 현실은 무엇인가?'란 2011 포럼 주제가 말하듯, 올해는 특히 전세계 경제와 정부 지도자들의 커져가는 두려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재계는 갈 바를 놓친듯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리더들은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일상 (new normal)²⁾'이라는 경제 실상앞에서 탈출구를 찾느라 고심중입니다. 아직까지 세계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경제적 현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듯 합니다.

이렇게 과거와는 전혀다른 양상 속에서, 전세계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경영 현장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세계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직한 고찰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고찰은 기술적이고도 학문적인 논의³⁾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의해 시도되고 있을 뿐입니다.

- 1) 다보스(Davos) 포럼이라고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독립 국제 기구로써, 정제계와 학계 및 여러 사회 지도자들과 연계하여 전지구적, 지역 및 산업의 쟁점들을 개선하여 세계의 번영에 힘쓰고자 헌신된 지도적 국제 기구를 의미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에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산업협회 (the European industrial association)의 후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포럼은 민관협력으로 확장되었을뿐 아니라, 그 영향력은 실로 전세계적으로 미쳤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전세계의 경제를 심각히 흔들어 놓았던 세계금융대란 이후에 다보스 포럼은 그 결과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포럼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매우 주목할만한 힘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공식 웹사이트, 2011, www.weforum.org).
- 2) 세계경제포럼 연례모임 2011 프로그램 (http://www3.weforum.org/docs/AM11/WEF_AM11_PublicProgramme.pdf)
- 3) 다행스럽게도 윤리학적인 관심은 전문적으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석사 이상의 대학 교과 과정에서 작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아시아 판은 보고하기를, 전세계에 걸친 경영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중요한 경영학 석사 과정들에서, 예를 들면 전략, 재무와 회계 과목들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의 요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WSJ Asian Edition, 2010,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4168004575178410786321340.html>). 하지만 이것은 경영현장으로까지 실질적으로 전파되기에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이 주제에 관한 토의에 앞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이 글의 목적은 학문적인 분석이나 연구 결과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관이 이렇듯 광범위하게 현대 경제의 주체들 사이에서 기술 중심의 위기 탈출 접근법들을 다루게끔 영향을 미쳤는지 토의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학계와 경영 현장 그룹들 사이에 퍼져있는 경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와같은 두려움은 정책개발이나 경제 체제 변화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공통된 사안

2008년 끝무렵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이를 만든 주범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경제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패⁴⁾'를 꼽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 이론들이 합리성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⁵⁾을 형성하는데 공헌한 점을 재차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시장에 가해지는 거대한 도전 중 하나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이는 또한 특별한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현재계에서, 윤리성과 도덕성이 점차 중요해져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패성을 현재 입고 있는 경제 폐해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학문, 경영 영역⁶⁾의 전문가들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이나 접근법들은 순전히 현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탁월한 경제·경영학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최근의 주제 중 하나는, 자본주의 자체를 재점검하는 틀로써 어떻게 공유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와같은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반응조차 현상 분석의 저변에 깔려있

또한,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조금 확장한 정도인 듯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 문제는 좀 더 학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진실하게 철학적이거나 도덕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는 독립적인 과목으로 분류하여 경영현장의 간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포함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4)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종류의 '부패'인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 부패의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Brookings 연구소의 Daniel Kufmann은 "법적 부패 (legal corruption)" 가 금융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법적·정치적 입김으로 인해 선호하는 규제만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전 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Simon Johnson 은 개혁의 핵심을 저해하는 "재정적 과두제 집권층 (financial oligarchy)" 을 정부가 반드시 해체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 은행과 자산 운영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Sam Wilkin, July-August 2009, Harvard Business Review).
- 5) 현대 표준 경제학 이론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의 불균형을 수정해 나가는,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Dan Ariely, July-August 2009, Harvard Business Review).
- 6) G-20 국가들은 국내 법규들에서 투명성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소속 국가들간 재무 시스템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재무 건전성 검토를 지지하는 쪽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Sam Wilkin, 2009). 듀크 대학의 행동경제학 교수인 Dan Ariely 는 주장하기를, 전통적인 경제학의 전제들은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출현된 전제들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글, The End of Rational Economics, 에서 언급된 행동경제학의 전제들이란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며 무의식적인 인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Dan Ariely, July-August 2009, Harvard Business Review).
- 7) 저명한 경영 전략 분야의 전문가인 Michael E. Porter 와 사회적 기업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인 Mark R. Kramer는 함께 오늘날 위협받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재조명 하고자 공유된 가치 창조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유된 가치의 개념은 즉,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집행이라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을 발전 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된 가치 창조란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인 진보 사이를 연결하는 끈을 확고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January-February 2011, Harvard Business Review). 어떤 면에서는, 이 개념은 개별 비즈니스 기관들이 그들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사회적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가치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는 그들의 사고체계를 점검하기보다, 기술적 접근만을 통한 기존 시스템 개선을 시도하는 이원적인 접근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저로 하여금, '이원론'을 현대 경제 주체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들의 근본원인으로서 주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재계에서 드러나는 이원론의 결과물들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드러난 이원론의 결과물

철학적인 용어로 이원론은 이성이나 영은 몸이나 두뇌와는 다른 것이다란 관점입니다⁸⁾. 특별히 이원론⁹⁾의 결과로 인해,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알 수 있다라는 절대적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인간의 이성으로 판명 불가능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¹⁰⁾. 이 사상은 결국 현대 경제학 시스템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에 의존하는 현대 사상들을 발전시키는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대 경제학 이론 발전의 결과로 인해, 20세기 초에는 경영학 이론과 같은 신흥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¹¹⁾. 제가 보기에는, 현대 경제·경영학 체계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학자들과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닫힌 계(closed system)¹²⁾'의 전제들을 소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성에 근거한 전통 경제·경영학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의 경제는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각 개체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성이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런 시스템은 향상된 결과들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궁극적으로 현실의 불균형을 스스로 수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개체들의 합리성에 매우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카르트의 관점은 현대 경제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케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음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해 알수도 있고, 이는 대부분 조정도 가능하더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생산성과 직결되는 복잡한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것의 조금 확장된 관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면에서, 이 개념의 최대 약점은 저자들이 그들 자신들의 이원론적인 관점때문에 생산성과 이윤창출에 관련된 당사자들-관리자, 종업원들, 그리고 직간접적인 고객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한 갈등양상들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자들은 자본주의 당면한 실패들을 해결한다는 것이 본인들의 전제-우리가 처한 비즈니스 세계는 '폐쇄계'이다 -에 충실하여 풀어가고 있습니다.

8) Keith Ward, 2010, More than Matter?, Lion, p. 21.

9) 이원론은 라브리 리더십 스테디 16째주 주제인 '이원론'이란 성인경 간사의 글에 잘 논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등장한 다양한 이원론들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원론이 비록 현실에서 존재하는 두 영역을 근본적으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데카르트의 관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이 관점이 합리주의와 자연주의의 기초를 놓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인 위치에 세움으로써 이원적인 사고체계 - 물질의 영역은 철저히 관리가능하며 합리성에 의해 설명가능하다 - 를 가져왔습니다.

10) Keith Ward, 2010, More than Matter?, Lion.

11) Peter Drucker 는 현대 경영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미 1940년대에 기업의 집중배제 (decentralization) 이론, 1950년대에 노동자들도 기업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객없는 비즈니스는 없다'란 단순한 개념은 1950년대에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여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Business Week, 2005, <http://www.successmagazine.com/the-father-of-management-theory/PARAMS/article/1115/channel/22>)

12) 저는 현대 경제 및 경영이론들을 보는 전문가들의 전제를 '닫힌 계 (Closed System)' 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는 자연과학에서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다룰 때 쓰는 용어로부터 가져왔습니다. 호주 라브리의 Frank Stootman은 한국 라브리 거울세계관 학교에서 가졌던 그의 강의에서 강조하기를, 현대 자연과학에서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전제를 닫힌 계라로 했습니다.

고 말합니다. 바로 이 관점이 제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닫힌 계 (Closed system)

닫힌 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 비즈니스와 경제 영역에서는 필연코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닫힌 계란 관점은 시스템 외부 존재의 간섭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닫힌 계의 본질상, 보이지 않는 힘, 즉 물질 세계로의 하나님의 간섭 자체는 그 존재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관점은 지속적으로 은혜, 심판, 축복, 또는 하나님의 역사 등과 같은 단어들을 행운, 적의 공격, 우연, 또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등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개념들로 인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상대적인 요소들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점이, 많은 비즈니스 주체들이 가능한한 모든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의 결과로 탄생한 지식 경영 시스템들은 전략, 기업재무, 마케팅, 그리고 조직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 분야의 의사결정에 쓰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과정에서 쓰여지는 지식들은 이원론적인 프리즘에 걸려져 수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원론적인 프리즘은 시스템 밖에서 목적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의 간섭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봐도 동의가 될만한 상식들에 대해서도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원적인 필터를 통해 걸러진 지식에 기반한 어떤 분석 작업이나 서로다른 시스템들을 경영하는 과정들도 모두 닫힌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재반복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1:7). 지식을 수집할 때의 잘못된 출발점은 잘못된 경영 결과물들을 낳게 될 뿐입니다. 이원론이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설득력있게 이끄는 것에 반해, 성경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에 임하는 바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출발선상으로 삼아야 할 근본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신다. 하늘과 심지어는 하늘 위의 하늘, 땅과 그안에 속한 모든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입니다 (창세기 1:1; 신명기 3:24, 10:14).

2. 닫힌 계의 관점은 시장의 합리성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새로운 이론들¹³⁾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표준 경제·경영학은 여전히 시장은 합리적이며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 자체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스템 외부에서의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닫힌 계의 자연스런 결과물입니다. 즉, 사람들은 시장의 합리성과 자체 수정 능력에 대해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와 그 후속 반응들에

13) 예를 들어, 행동 경제학의 전제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면 무의식적인 인지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존재이다. 이 새롭게 등장한 영역은 인간과 조직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방식에 대한 관념을 매우 급진적으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Dan Ariely, July-August 2009, Harvard Business Review).

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완벽히 자가 수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명의 부패된 마음이 세계 경제 전체의 위협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 정부들도 시장의 합리성을 고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적 규제를 만드느라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시장이라 믿으면서도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관리 및 감독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시장의 비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은 온전하게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이슈입니다. 시장의 자체 정화성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재고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시장의 합리성은, 합리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이 최대로 발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자체 수정가능하다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경제적 현실을 절대적으로 제어가능한 위치로 올려놓으려는 의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지하는 바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궁극적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과,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통치의 대리자 또는 종으로써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8). 바로 이와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다음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찌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잠언 3:5-6).” 우리의 경제 현실에 관한 이해의 핵심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장 자체를 신뢰하는 것 보다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의뢰하여라. 둘째로는 시장에 대한 그리고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에 대해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평가보다,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존재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닫힌 계의 관점은 시장의 진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닫힌 계의 사고는 시스템 외부로 부터의 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고, 시장의 합리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중국에는 시장에 대한 진화론적인 관점을 수용하게 됩니다. 즉, 시장은 시스템 내부 환경에서의 인과관계 - 우연과 자연발생적인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 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ichael Shermer는 매우 열정적이면서도 활발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다윈의 진화이론과 진화론적인 영향을 받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을 종합함으로써, 인간의 이성¹⁴⁾에 의해 좌우되는 핵심적인 시장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진화론적인 접근법은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그들이 반복적으로 이 이론을 현장에 응용해 왔습니다. 마케팅과 조직 경영 분야에서 새롭게 출현한 경영학의 원리들은 모두 급진적으로 이 원리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의 진화론 학자들 관점에서는 시장의 고객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감정 중심적이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특히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충성되게 이 진화론에 바탕한 전제들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 예들로, 그들은 이미지 형성 광고 기법들이나 조직원 동기

14) 그는 행동이론과 진화론 그리고 뇌심리학을 경제학과 결부시켜 어떻게 진화론적인 사고가 진화론적인 시장을 형성하는가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게 그의 책, *The Mind of The Market*, 에서 서술하였습니다 (Michael Shermer, 2007, Times Books). 특별히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과학분야에서의 업적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부여를 긍정의 사고 이론이나 포스트모던 심리학 이론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행해왔습니다. 근래에 심리학 책들¹⁵⁾이 베스트 셀러로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행과 맞닿아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경영학에서 나타난 진화론적인 개념은 매우 급속하게 비즈니스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기독교인들에게는 인간과 일상삶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닫힌 계의 관점은 시장 현실에 대해 매우 좁은 관점을 생산해 냅니다.

만약에 경제 시스템 밖에서 어떤 궁극적 존재의 도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현재 시스템의 폐해에 실망하게 될 때는 냉소주의가 나타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이성의 힘에 의해 계속 진보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일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경제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인 이들은 쉽게 그들이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과 의미를 연결하는 것에 실패해 현실을 도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같은 관점에서는 현실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뿐, 외부로부터 기인한 희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적인 문제인 듯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은 그들의 냉소주의는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닫힌 계라는 이원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확고하게 낙관적인데, 이또한 인간의 이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참된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다음의 두가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론, 인간의 이성은 기술적으로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경제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물리적 자원의 부족성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학 계산의 도움으로 기술은 인간의 이해를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현대 수학은 시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서 완벽히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현실의 주체들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현대 과학은 '신비(mystery)'가 공존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있을찌라도, 저는 바로 여기서 신비가 존재함을 논쟁하고자 합니다. '신비'는 현대 과학의 논리대로 한낱 개인의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다가가 검증할 수 없을 뿐이지 오히려 3차원의 현실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다차원의 실제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예수께서 실제로 행하신 5천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마태복음 14:17-18)은 보이지 않는 힘이 물리적 세계 바깥에서부터 개입하여,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현상을 걸쳐 이루어진 엄연한 실제입니다.

또한 모든 경·재계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우리의 경제 현실은 실제적 자원들의 부족성속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의 핵심 요소들에 해당하는 자연, 자본, 노동 자원들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질의 부족성이 경제 시스템 진보에 핵심적인 장애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는 지금 경·재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관리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냉소주의자들이나 낙관주의자들 반응은 모두

15) 현재 책시장에서 국내외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뇌과학 결과들을 자가 동기부여, 인맥관리, 심리학, 조직관리, 그리고 마케팅 영역등에 결합시킨 주제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믿고, 낙관주의자들은 자원의 한계성이 진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가능한 영역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냉소주의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나 (요한복음 2:1-12),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여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은 (누가복음 5:1-6) 모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물질세계에 간섭하셔서 물질의 화학적 변화와 자원의 물리적 증가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들일 것입니다.

게다가, 낙관주의자들에게는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고대 제국들에 나타난 하나님 심판의 역사적 예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에 비평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계 강국들의 부와 번영도 흔드실 수 있으며 (학개서 2장), 또한 그들 생산의 결과들을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학개서 2장; 말라기 3장)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진화론이 지지하듯 경제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자체 수정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생산성 증가가 순전히 시장 주체들의 상호작용만으로 가능하지도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궁극적 존재의 영향과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활동들의 협력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경제 실재에 대한 열린 관점을 인지하지 않는한, 누구나 이상의 두가지 극단적이고 협소한 이원론적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닫힌 계의 관점은 비즈니스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원론적 접근법을 확산시킵니다.

경·계계에 관한 성경적 관점과 이의 실제적 적용사이에서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원론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칠수록, 그들의 비즈니스에서 드러나는 결과들은 더 참혹해 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명의 그리스도인 사업가들과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명은 20년이상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왔던 분이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한 참석자에게 그가 조언하기를, “당신이 사업을 경영할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나든 경영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당신이 경영하는 현장에선 그다지 중요하지 않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원리대로만 풀어야하오.” 그가 어떤 의미에서 말했는지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매일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그의 사고관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예가 어찌 비단 그만의 경우이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성과 비즈니스 사이의 관계를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Paul Stevens는 그의 책, *Doing God's Business*¹⁶⁾, 에서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비즈니스의 가치들을 심도있게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일상의 비즈니스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성인경 간사가 이원론이란 글에서도 잘 언급했듯이,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는데 있어 더욱 성경적인 관점은 바로 통합론입니다. 이 통합론은 각각의 서로 다른 영역의 원리들이 성경의 원리를

16) 그는 시장에 의미와 동기 등을 매우 잘 탐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그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폴 스티븐스,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IVP (R. Paul Stevens, 2006, *Doing God's Business*, Eerdmans).

토대로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적용되는 이원론적 접근이 유행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닫힌 계라는 이원론의 관점을 심각하게 아무런 점검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은 하더라도,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순수한 영적 활동에만 국한 시키는 듯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성경적 적용점을 소개받습니다.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 영적 활동에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린 실제 (open reality)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비즈니스에서 제한된 위치에만 국한시키는 닫힌 계 (closed system)의 원리를 아래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 안에서 다음 한가지는 실제로 보여집니다. 경제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질 수록, 이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과 댓가가 요구될 것입니다.

닫힌 계 대 열린 계

닫힌 계라는 사고와는 반대로, 성경은 경·재계를 포함한 우리 현실은 열린 것이라는 점을 지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했듯이, “하나님도 한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6).”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란 진리는 창조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권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질 세계에 대해 비인격적인 방관자도 아니며 무능력한 감독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 실제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닫힌 계의 관점에 의한 현대 경제 시스템 속에서의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부정은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성의 권위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시장 시스템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닫힌 계의 관점은 항상 실제 시장 시스템이 스스로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이 강조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으며, 책임있는 통치자로서 시장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치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씀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들을 통해서도 완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장 기능의 복잡성은 수학적 분석작업으로 관측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스런 일하심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이 복잡다단한 시장개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시장 개체속의 하나님의 거하심은 시장의 구성원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적 사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즈니스에 임하는 사람들은 경·세계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장 현실의 본성을 ‘열린 계(Open System)’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닫힌 계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시스템 밖에서의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는 반면에, 열린 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현실안에서 궁극적 존재에 의한 간섭의 힘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관점은 사람들이 성경의 빛 아래서 경·재계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닫힌 계의 관점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의 근원적인 영역들 - 제품·서비스, 교환매개체 (대부분 돈과 같이 재화의 가치를 지니는 것), 그리고 고객·소비자 - 안에 속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 경·재계의 틀이 그러하듯이, 닫힌 계의 사고관에 따르면, 비즈니스에 임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3가지 근원적인 영역들이 순전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의 경영 시스템에 따라 관리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영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들을 가능한한 세부화 시키게 됩니다. 혁신, 전략, 재무 경영, 마케팅, 리더십, 조직 관리 등등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법은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모든 면들을 효과있게 관리하는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즘 재계에서는 이를 일컬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성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적 접근에 매우 의존한 방법은, 많은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현실을 더욱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봐야한다고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학적 또는 사례에 기반한 증거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대안적 설명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재계에서는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재계 시스템을 바라볼때 열린 계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사람들은 커져가는 불확실성을 대면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자체가 실험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계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정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지혜에 기반한 안목은 과학적 방법의 도움으로 얻는 지적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린 계는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 현실을 인지하는데 더욱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해줍니다. 왜냐하면, 열린 계의 관점은 비즈니스 이슈들의 근본적 원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거나, 또는 경영 전반에 걸쳐 각 이슈에 따른 합당한 향후 전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잠언은 매우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언들을 해줍니다.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성경 구절들과, 그에 대한 경영 현장에서의 적용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듣고(listen) 학식이(in learning)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understand)는 지략(guidance) 얻을 것이라 (1:5) - 이 구절은 경청과 명철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청과 명철함에 주목함으로써 학식과 지략을 얻게 됩니다. 이 원리는 지식 경영과 조직 경영 시스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는데 매우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으라 (Reprove),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instruction)를 더할 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wiser),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in learning)이 더할 것이다 (9:8-9) - 이 원리는 조직의 내외부에서 현명한 조언자 그룹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경영분야에서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은 이 원리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wisdom)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insight)의 근본이다 (9:10) - 여기서 발견되는 원리는 지혜와 통찰의 참 근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은 의사결정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결

정이 어떤 관점에서 비롯되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즉 세계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wise of heart)은 명령(commandments)을 받아들이지만,..., 흠없이(integrity) 이 살면 걸음이 평안(securely)하다 (10:8,9) -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혜로운 마음 (wise heart)' 이란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고 있지만, 산업 심리학에서 유명해진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같은 용어는 여기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함(integrity)은 현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리스크 경영과 전략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의 혀(tongue of the righteous)는 순수한 은(choice silver)과 같지만,...,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feed many) (10:20,21) - 조직 관리에서 올바른 말의 선택보다 더 강력한 요소는 없습니다. 의로운 말은 조직 구성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고객들을 놀라울만치 격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비즈니스 운용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blessing)을 주셔서 부유(rich)하게 되는 것인데 (10:22) - 이 말씀에 따라, 재무와 인적자본 같은 기업 자원 관리 분야에서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원리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리더들은 회사내의 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분야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discerning)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sweetness of speech), 더욱 많은 지혜(persuasiveness)를 가르친다 (16:21) - 이 말씀은 조직 관리, 마케팅, 시장전략 분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환경을 명철하게 포착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리더의 말에대한 설득력(persuasiveness) 정도는 조직내 협업 문화를 창조하는 것과 협업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직결됩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intelligent heart)은 지식(knowledge)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the ear of the wise) 지식(knowledge)을 구한다 (18:15)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지식 경영에서의 조직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명한 리더의 경청능력이 바로 지식 경영과 재능 경영의 핵심 능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의 강조된 부분들을 읽고 귀기울여 주십시오! 현대 경영 현장에서 매우 귀중한 가르침들이 위의 구절들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경말씀들은 처세술에서의 참고사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성경의 원리들입니다. 경영학 관점에서 보면, 지혜는 전략적 사고와 그리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 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누구든 경제 현실에 대한 열린 계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관점이 주는 전혀 새로운 통찰로 인해 모든 비즈니스의 내외부 활동들이 전혀 효과적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향해서

지금까지 비즈니스 세계에서 드러나는 이원론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점의 가장 큰 결과물은 바로 우리 경제 현실 자체가 닫혀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간섭도 없는 닫힌 계라는 사고관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경·재계를 향한 이 이원론적 접근은 궁극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부와 진화론에 대한 수용, 그리고 냉소주의와 긍정주의를 불러일으키며, 학계의 현 관점들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린 계의 관점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아직도 성경적인 관점의 회복을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계의 관점에 대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폭넓은 적용은 결코 증명되지 않은 이상일 뿐이라고 취급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줄일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성경의 지혜에 의존하여 올바른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는데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점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 복잡다단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기반한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세워야 하는 도전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Bibliography

- Airely, Dan, "The End of Rational Economic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2009: p. 78-82
- Frank, Stootman, "Creation and Science." L'Abri School of Christian Worldview, 2006
- Inkyoung, Sung, "Dualism." L'Abri Fellowship Korea, 2011
- Jock McGregor, "The Dangerous Dilemma of Dualism." Rochester Conference, 2011
- "ESV Study Bible." Crossway Bibles, 2008
- Keith, Ward, "More Than Matter?" LION, 2010
- Michael, Porter, Mark,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2011: p. 62-77
- Michael, Shermer, "The Mind of The Market." Times Books, 2007
- Sam, Wilkin, "Heed the Calls for Transparency." July-August 2009: p. 16-17
- Stevens, Paul, "Doing God's Business." Eerdmans, 2006
- Bloomberg Business Week, "The Man Who Invented Management."
http://www.businessweek.com/magazine/content/05_48/b3961001.htm, 2005
- World Economic Forum, www.weforum.org, 2011
-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1 Programme,
http://www3.weforum.org/docs/AM11/WEF_AM11_PublicProgramme.pdf, 2011
- Wall Street Journal Asian Edition,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4168004575178410786321340.html>, 2011
- The work of Michael Shermer, www.michaelshermer.com, 2011